

‘섬소녀’ 이소미·임진희, 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 우승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 합작…연장전서 미국 선수 제압
한국 선수 최초 우승컵…완도·제주도 출신 ‘본투비 아일랜드’

‘섬 소녀’ 이소미와 임진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우승을 합작했다.

이소미와 임진희 조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 70·628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합작하며 8언더파 62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이소미-임진희 조는 렉시 톰프슨-메건 캉(이상 미국) 조와 연장전을 치러 첫 홀인 18번 홀(파3)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LPGA 투어 유일의 2인 1조 경기인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이소미와 임진희는 이번 대회에서 BTI라는 팀명으로 출전했다. 완도 출신 이소미와 제주도 출신 임진희가 모두 섬에서 왔다는 의미인 ‘본투비 아일랜드’(Born to be Island)의 약자다.

이소미와 임진희는 모두 LPGA 투어 2년 차로 이번 대회를 통해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임진희가 6승, 이소미가 5승을 올렸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80만5381달러(약 10억9000

만원)로, 이소미와 임진희가 이틀 나눠 갖는다.

올해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김아림(2월), 김효주(3월), 유혜란(5월)에 이어 이소미, 임진희가 네 번째다.

16번 홀까지 톰프슨-캉 조에 1타 뒤져 있던 이소미-임진희 조는 17번 홀(파4)에서 이소미의 버디 퍼트로 공동 선두가 됐다.

이날 4라운드 경기는 두 선수가 각자의 공으로 경기하는 포볼 방식으로 진행됐고, 연장전은 두 명이 공 하나로 경기하는 포섬 방식이 적용됐다.

144야드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서 티샷은 톰프슨의 공이 홀과 더 가까웠으나 먼저 퍼트한 임진희가 약 2.5m 거리에서 침착하게 공을 홀 안으로 보냈다. 더 가까운 거리였던 캉의 버디 퍼트가 홀 왼쪽으로 지나가며 임진희와 이소미는 서로 포용하고 우승 기쁨을 나눴다.

이소미는 우승 후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작년에 힘든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우승이 너무 행복하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진희 역시 “혼자였다면 우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년에 다시 이 대회에 나오겠다”고 전했다.

2019년 6월 솔라이트 클래식 이후 6년 만에 투어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에서 열린 LPGA투어 다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소미(오른쪽)와 임진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맹남

12승째에 도전한 톰프슨은 통산 연장전 전적 6전 전패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다.

교포 선수 오스틴 김(미국)과 한 조를 이룬 김세

영이 16언더파 264타, 공동 6위에 올랐다. 전지원

과 이미향은 15언더파 265타로 공동 10위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였던 박성

현-윤이나 조는 이날 2타를 줄였으나 13언더파

267타, 공동 18위로 밀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6월 승률 1위’ KIA, 안방서 호랑이 포효 잇는다

1~3일 SSG·4~6일 롯데와 홈 6연전 돌입

41승 3무 35패 리그 4위…한화와 3.5게임차

6월 KBO리그를 제패했던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홈 6연전에서 최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키움히어로즈에 1승 1무 1패를 거둔 뒤 주말 LG트윈스를 워닝시리즈를 달성했다. 그 결과 41승 3무 35패로 승률 0.539를 기록, 승패마진을 +6로 늘리면서 리그 4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특히 KIA는 6월 한 달간 ‘다들딩 챔피언’다운 위용을 뽐냈다. 24경기에서 15승 2무 7패로 리그 유일 6할 승률(0.68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 성적은 ‘잇몸’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백업으로 머물렀던 오선우, 김호령, 김석환 등이 깜짝 활약을 선보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주전급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선두권과의 격차도 확연히 줄었다.

리그 1위 한화이글스와는 3.5게임차, 2위 LG트윈스와는 2.5게임차다. 3위 롯데자이언츠와는 1.5게임차까지 좁혀졌다. 이번 주 주말 롯데와의 경기가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최상위권으로의 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KIA 타선의 분위기는 좋다.

지난주 경기 기간 팀 타율은 0.291로 SSG와 리그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홈런은 6개로 단독 2위,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813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해결사’ 최형우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주 6경기에서 25타수 10안타 1홈런 6타점 타율 0.400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그는 지난 24일 키움과의 1회초 1사 1·2루 상황 타석에 올라 상대 2구째 142km 직구를 받아쳐 선제 스리런포를 터트렸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30m의 대형 홈런이었다. 전날 경기까지 1698타점을 기록했던 최형우는 이 홈런으로 통산 1700타점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 1982년 KBO리그가 출범한 이후 역대 최초의 기록이다.

박찬호도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주 6경기에서 26타수 10안타 4타점 타율 0.385를 기록했다. 이 기간 매 경기 안타를 때려냈던 박찬호는 3번의 멀티히트 경기도 만들었다.

오선우 또한 지난주 6경기에서 28타수 9안타 3타점 타율 0.321로 견제한 타격감을 선보였다. 수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제 몫 이상을 해내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외에 김호령, 김석환, 고종욱 등이 활약하며 팀 타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운드 또한 흐름이 좋다.

전상현은 지난 28일 LG트윈스전에서 6회말 2사 1루 상황에 마운드에 오른 뒤 1이닝을 막으며 홀드 한 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전상현은 KBO 역대 19번째 통산 100홀드의 금자탑을 쌓

았다.

정해영 역시 같은 경기에서 9회말 등판해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아내면서 세이브를 추가, 역대 3번째로 5시즌 연속 20세이브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는 구대성과 손승락보다 빠른 데뷔 6년차 만의 대기록이다. 구대성은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2001년~2005년 해외진출) 20세이브를 달성했고, 손승락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20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호민, 성영환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KIA는 이런 상황에서 주중 경기를 SSG와 치르게 된다.

SSG는 현재 39승 3무 36패 승률 0.520으로 리그 5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2위(3.50)로 KIA(5위·4.16)를 웃돌고 있지만, 팀 타율은 리그 9위(0.248)로 KIA(0.257·5위)를 밀리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무 3패로 팽팽하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SSG는 김건우를 1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김건국을 선발로 투입한다.

SSG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같은 장소에서 롯데를 상대한다.

KIA가 이번 주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최초 스포츠클럽 종합 체육대회인 '제1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가 지난 28일 목포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형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새 지평 열어

‘1회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 성료
36개 공공스포츠클럽 1000여명 참가

전남 최초의 스포츠클럽 종합 체육대회인 ‘제1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가 지난 28일 목포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스포츠클럽과 전남희원중목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남 36개소 스포츠클럽(종합형 19, 한종목형 17)에서 1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배드민턴, 야구, 축구, 탁구, 파크골프 등 총 5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됐으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소속 클럽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화

합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참여했다.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남형 체육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현장에서 우수 선수와 체육 인재가 자연스럽게 발굴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이 대회를 연례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도민이 함께하는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스포츠를 매개로 하나 되는 전남형 스포츠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모두가 더 쉽고 즐겁게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도체육대회, 전통·내실 있는 체육축제로 거듭날 것”

전남도체육회 ‘도체육대회 운영평가회’…참가자적 개선 등 의견 수렴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손점식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오미경 전남도스포츠산업과장, 이길용 구례군 부군수,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과 22개 시·군체육회 및 23개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제64회 전남체전 유공자 표창,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 대회 개최 결과, 차기대회 변경 및 검토사항, 대회운영개선 의견을 듣는 순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64회 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 80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도지사 표창은 김남수 장성

군 서삼면체육회 상임부회장·김희철 전남농구협회 이사, 체육회장 표창은 최규원 장성군 체육시설사업소장·박승근 전남육상연맹 전무이사가 각각 대표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기 대회와 관련해 논의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당구 1쿠션 종목의 종별 추가, 탁구 여자 단체전 100% 점수 반영, 기관별 체육지도자 참가 범위 등 참가자적 기준의 세분화가 제시됐다.

손점식 사무처장은 “제64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평가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대회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남도체육대회가 도민이 함께하는 전통 있고 내실 있는 체육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